

중소기업 기술, 국민과 함께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8.03 06:00 수정 : 2020.08.03 06: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료·바이오분야 혁신기업 온라인 IR'을 진행하고 있다(구루미 영상플랫폼 갈무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전략을 세우는 데 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중기부는 2일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온라인 자유 토론회 시스템(jamming)을 구축하고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유토론 시스템을 뜻하는 재밍(jamming)은 IBM에서 미래기술예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유망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유롭게 토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개방형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의 한 형태이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최신 기술개발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술 로드맵에서는 인공지능 등 27대 분야의 216개 전략제품이 제시됐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 연간 약 15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지원하고

그동안 기업과 전문가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
으로 업계와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인공지능(AI)' 등 2개 분야에 수요자인 일반
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온라인 토의는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누리집의 '재밍' 메뉴에서 관련 분야 전문
진행으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재밍'을 도입함으로써 수요자 의견이 반영
술개발 사업화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등 성과가 신속히 도출될 것으로 기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